

해남사랑상품권 지역경제 마중물 된다

10억 구매 릴레이운동 62개 기관·단체 등 참여
4월 출시 후 114억원 판매...전남 도내 최고 성과

해남군이 추진중인 해남사랑상품권 10억원 구매 릴레이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 10억원 구매 릴레이운동을 실시, 현재까지 62개 기관과 학교,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해 6억1,000만원의 구

매를 약정했다.
해남사랑상품권 10억원 구매 릴레이는 지난 7월 23일 1호 광주은행을 시작으로 해남공고, 남부산업이 2억2,0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한다 이어 ㈜뉴텍, 해남군청 비정규직노동조합, 해남YMCA, ㈜혁신, 해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산림

조합, 해남군청 멘토·멘티 동호회, 해남종합병원 등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참가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많은 기관 등에서 구매릴레이운동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연말까지 10억원 구매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남도내 최대인 연간 150억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114억 여원이 판매되는 등 전남도내 최고의 판매 성과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가맹점 또한 꾸준히 늘어 2,300개소를 돌파하는 등 해남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정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해남사랑상품권 10억원 구매 릴레이를 비롯해 민관이 합심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오래 갈 미래의 도시, 슬로시티 목포’ 비전 선포

생태·역사·문화 유산 보존
‘균형과 조화’ 등 비전 제시

목포시가 최근 열린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슬로시티 목포’를 선포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목포시는 지난 6월 22일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서 세계 253번째, 국내 16번째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시는 목포의 생태·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 ‘균형과 조화’를 통한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나겠다는 의미로 ‘오래 갈 미래의 도시, 슬로시티 목포’ 비전을 선포했다.
슬로건은 ‘슬로시티 목포 도(島),시(市),락(樂),행복을 담다’로 정했다.
의미는 섬과 바다 등 자연생태를 뜻하는 도(島), 근대화유산 등의 과거와 지속 가능한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뜻하



목포시는 최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슬로시티 목포’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목포시 제공

는 시(市), 예향의 도시를 뜻하는 락(樂)에 다시 중의적 표현인 ‘도시락’을 통해 슬로시티푸드와 연계한 맛의 도시 의미가 담았다.
시는 4대 과제로 ‘균형과 조화의 미래형 도시 조성’, ‘사람중심, 시민의 행복한 슬로라이프 만들기’, ‘낭만여행, 목포 슬로투어 상품 개발’, ‘슬로시티 목포, 시민과 함께 알기’를 제시했다.

옛것과 첨단,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균형과 조화의 미래형 도시를 조성한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 등 슬로 시민운동을 통해 행복한 슬로 라이프를 만들어나간다.
목포 낭만 도시락 브랜드화, 슬로시티푸드 등 다양한 슬로상품을 개발해 ‘낭만여행, 목포 슬로투어’를 운영한다.

시는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슬로시티 정책 추진의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근대역사문화 자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문문화가 보존된 섬, 남도 맛의 으뜸인 맛의 도시 등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슬로시티 목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완도 10월 해양치유식품 ‘삼치’ 선정

오메가3·DHA 등 풍부...두뇌 발달·암 예방 효과

완도군은 3일 “10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삼치’ (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치는 농어목 고등어 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인 우리나라 동·남·서해에 분포한다.
고등어, 꽂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의 하나인 삼치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가 많아 성장기 어린이 두뇌 발달과 노인들의 치매 예방, 기억력 증진,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동맥경화와 뇌졸중 등과 같은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과 당뇨병 예방에도 좋다.
삼치는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연안이나 북쪽으로 이동하며, 가을에는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한다.
10월부터는 살에 기름이 오르기 시작해 겨우내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손꼽히는데, 살이 희고 부드러워서 노인이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편해 인기가



좋다.
삼치는 주로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먹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남도에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삼치를 회로 먹는다.
특히 완도에서는 김에 따뜻한 쌀밥을 얹고 삼치 회와 양념장, 묵은 김치를 함께 올려 먹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으며, 회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
지금껏 제철 맛은 삼치 회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때이다.
/완도=최규옥 기자

신안-제너시스 BBQ 주민 소득증대 맞손

농특산물 판로개척·일자리 창출 협력

신안군은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제너시스 BBQ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윤홍근 회장은 최근 군수실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주)제너시스는 관계자는 “업무 협약 체결 내용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의 소외된 복지과 교육 분야에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BBQ 신안 1호점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새로운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안좌면 퍼플로 입구에 문을 열었다.
군 관계자는 “BBQ 입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관광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 것으



로 기대한다”며 “향후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추가 입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강진 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착수

올해 관망정비 설계 완료 내년도 공사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와 관망 분석을 통한 체계적 노후 상수관망 교체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격 관망정비 공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93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지역별 유량, 수압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불록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누수 최소화하는 2022년까지 유수율 85%를 달성해 깨끗하고 안

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에는 총 100억원을 투자해 관로 노후가 심한 강진읍과 병영면 급수 구역을 중심으로 관망정비 공사를 본격화한다.
군 관계자는 “공사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차량통행 및 수돗물 공급에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사전고지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내일부터 진도문화예술제 열린다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회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진도 북놀이 페스티벌은 전국의 북놀이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소년 손재형 선생의 예맥을 계승하고 예향 진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민국 소년 서예 회화대회도 개최된다.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6일 열리는 무형문화재 6종의 공개발표회도 눈길을 끄는 행사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2호인 찻감귤을 비롯 진도 북놀이와 진도 만가, 소포농악, 조도뫼배놀이, 남도잡가 재현행사도 열린다. /진도=박병호 기자

전국 최초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진도에서 전통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테마로한 축제가 열린다.
진도군은 5일부터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2019 진도문화예술제’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축제의 백미는 2019 진도 대한민국 국악제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축제로 국악의 계승과 발전,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우리 춤, 음악, 소리의 향기가 머무는 풍류 국’ 등이 5일 오후 2시에 향토문화

무안 공간정보 연구회 대상 수상

도로명주소 자동 등기축적 연계방안을 모색

무안군은 3일 “순천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간정보 연구회’에서 김영근 주무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한 이번 연구회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담당공무원의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연구·토론하는 자리로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위해 개최됐다.
무안군은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공적장부 주소 일치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자동 등기축적 연계방안을 모색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공간정보 연구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6년 연속으로 토지행정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무안군민들에게 고품질 대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암 덕진면지사협 반찬지원 서비스
영암군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특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10가구를 방문해 밀반찬을 전달했다.
반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불편한 점을 청취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용현 덕진면장은 “앞으로도 면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시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 초청 강의
목포시는 최근 김택환 경기대학교 특임교수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택환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산업 전략 모델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무안 운남면 노인의 날 행사
대한노인회 무안군 운남면분회가 주관 해 개최된 행사는 김산 무안군수와 지역 한 노인의 날 행사가 망운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김문삼 분회장은 “노인들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